

남북관계,

“제3의길”로 풀어가자!!

2011. 9. 6

국회의원 남경필

(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 / 한나라당 최고위원)

왜 대북정책에서

‘제3의 길(중도실용주의)’가 필요한가?

■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명칭 비교

군사 안보의 측면	남북 협력의 측면
김대중 정부	화해
노무현 정부	평화
이명박 정부	상생

협력
번영
공영

왜 대북정책에서

‘제3의 길(중도실용주의)가 필요한가?

- 중도는

첫째, 전통적인 이념적 구분법을 넘어선다는 것.

둘째, 일방주의를 버리고 소통을 택한다는 것.

셋째, 계층적으로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을 향하고
이들의 문제에 대해 실용적인 해법을 찾는다는 것.

→ 남북관계에서도 중도실용적 접근이 필요

현 정부 대북정책 평가

-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관계, 한반도 안보 체계 불안정 지속
- 연평도 포격 이후 대북정책에 있어 강경한 기조 유지
→ 인도적 지원, 민간교류 단절 지속
- 통일부장관 교체 : 류우익 전 주중대사 내정과 함께 유연한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와 변화 없을 것이라는 우려 공존

최근 북한 동향 및 평가

■ 경제난 타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

- 김정일 국방위원장, 지난 8월 20일~25일 9년 만의 방러
- 8월 25일~27일 방중
- 6자회담 재개, 가스관 건설 등 남,북,러 3각 협력 사업에 관심 표명, 정치경제교류 확대 논의

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 의지 확인

- 7월 22일 빨리 비핵화 남북대화
- 7월 28일~29일 미북대화
- 북측,
“6자회담 재개를 위해 잠정적으로 핵실험을 중단할 수도 있다”

향후 대북정책 방향 ; 정치에는 원칙 견지, 인도적 지원. 문화교류 분야에서는 유연성이 필요

- ‘대화와 제재의 투트랙’ 중
기존 제재 중심에서 대화 중심으로
- 대북정책은 정경 분리 원칙 견지 필요
 - 정상회담, 6자 회담 등 정치부분은 원칙 견지, 사과와
재발방지 조치 필요
 - 경제, 인도적 지원, 문화 교류는 전략적 유연성 발휘 필요
 - 정경분리를 통한 대북정책의 전략적 옵션을 확보하기 위한
노력을 시작해야 할 시점.

외교통상통일위원장 1년, 도전과 성과

■ 한-EU FTA 원만한 처리

– 정치적 상상력과 새로운 의회문화 :
대화, 타협, 양보, 인내로 모두가 비웃었던
민주적, 합의 처리



외교통상통일위원장 1년, 도전과 성과

■ 한-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

– 물리적 충돌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 한-미FTA 비준동의안 상정 및 처리가 당면 목표



로스테리넌 미 하원의원과의 만남(좌), 한미FTA 여야정협의체(우)

외교통상통일위원장 1년, 도전과 성과

■ 남북경협기업 실태조사

- 5.24 조치 이후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협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간담회 개최
- 경협기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경협기업 피해 사례를 담은 백서 발간

■ 외통위에 통일 소위 설치

- 통일비용, 통일세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
→여야가 합의하는 통일 원칙을 제시하고자 독일 통일 현장 방문
- 2+4 통일 외교 전략: 남북한과 미, 중, 러, 일 적극 동조
→통일 외교를 위한 미래전략과 액션플랜을 국회차원에서 수립